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557>

JCCT 2023-1-68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양현주*, 변은경**

Hyun Joo Yang*,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수, 다중회귀분석,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평균 2.62±0.62점, 대인관계능력 평균 3.74±0.62점, 대학생활적응 평균 3.38±0.58점이었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지각된 스트레스($r=-.478$, $p<.001$)와 부적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r=.617$,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부분매개효과($\beta=.629$, $p<.001$)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college life adjust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 whether or no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281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using SPSS/WIN 23.0. The degre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was 3.38±0.58.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perceived stress($r=-.478$, $p<.001$),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r=.617$, $p<.00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had partial mediating($\beta=.629$, $p<.001$) effect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nd decrease perceived stress,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education and program that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Key words : Perceived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llege Life Adaptation, Nursing Student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참여저자)
접수일: 2022년 11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November 30,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byunek@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대학생에게는 전공, 학업, 새로운 대인관계 및 대학문화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학업과 심리 사회적 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 적응은 어느 시기나 중요하지만 대학생활의 적응이 중요한 것은 대학생 시기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적응이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 이로 인해 대학생은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과업 성취의 어려움, 대인관계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을 겪게 된다[3]. 특히,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에서 마주하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대처하고[4-5] 학습성과 및 정서적 성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6].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전공과목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여유로움이 없이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하고 임상실습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정해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7]. 또한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지원한 학생들의 적성불일치는 대학생활적응 곤란과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8] 학업을 포기함으로써 중도탈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생이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4] 대학 신입생은 상급생에 비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이 낮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휴학이나 자퇴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학년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스트레스가 있다. 대학생활 중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학생은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문제와 불안, 실패감, 긴장,

좌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지는 등의 대학생활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10].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및 건강상태와 관련성을 나타낸 결과[11-12],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관련성을 나타낸 결과[13-14]를 통해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무엇보다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습득되는 것이다[15].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 경우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높고[16], 가족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적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17]. 대인관계 형성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중요하지만 간호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 대상자 및 보호자와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효과적이고 치료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18]. 또한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다양한 대상자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하여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가 훈련되므로 성공적인 대인관계능력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임상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경력간호사는 낮은 임금이라고 한 반면 신규간호사들은 대인관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치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함으로 효과적인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요구된다[20].

대인관계능력은 장시간을 통해 습득할 수 있어 간호대학생은 저학년부터 대인관계능력을 배우고 학습하며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4][21]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관계를 확인하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지각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생활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생활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참여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5일에서 10월 22일까지 진행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28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ohen 등[22]이 개발하고 Cohen,

Williamson[23]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으로 만든 도구를 Lee[24]가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Schlein, Guermey[25]가 개발한 도구를 Moon[26]이 번안하고 Lee[27]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만족감 5문항, 감정이해 7문항, 의사소통 6문항, 개방성 5문항으로 총 2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3) 대학생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 Siryk[4]가 개발한 대학생생활적응 척도를 Hyun[28]이 번역하고 Kim[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생활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학생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0]의 매개효과검증을 사용하여 3단계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학생’ 36명(12.8%), ‘여학생’ 245명(87.2%)이었고, 연령은 ‘20-22세’가 107명(38.1%), ‘19세 미만’ 100명(35.6%), ‘23세 이상’ 74명(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55명(55.2%), ‘2학년’ 126명(44.8%)이었고, 학과 친구 수는 ‘3-4명’이 110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 85명(30.2%), ‘1-2명’ 75명(26.7%), ‘없음’ 11명(3.9%)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6	12.8
	Female	245	87.2
Age (year)	≤19	100	35.6
	20-22	107	38.1
	≥23	74	26.3
Grade	1 st	155	55.2
	2 nd	126	44.8
Number of friends	None	11	3.9
	1-2	75	26.7
	3-4	110	39.2
	5명 이상	85	30.2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 평균은 2.62±0.62점, 대인관계능력 평균 3.74±0.62점, 대학생활 적응 평균 3.38±0.5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Table 2. Degree of Perceived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llege Life Adjustment (N=281)

Variable	M±SD	Min	Max
Perceived stress	2.62±0.62	1.00	4.3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74±0.62	1.00	4.00
College life adjustment	3.38±0.58	1.00	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F(p) scheff's
Gender	Male	3.45±0.51	.785 (.433)
	Female	3.37±0.59	
Age (year)	≤19	3.37±0.62	.255 (.775)
	20-22	3.37±0.58	
	≥23	3.42±0.52	
Grade	1 st	3.44±0.59	1.885 (.060)
	2 nd	3.31±0.55	
Number of friends	None	3.19±0.52	2.224 (.086)
	1-2	3.26±0.43	
	3-4	3.44±0.61	
	5명 이상	3.44±0.64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지각된 스트레스($r=-.478,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인관계능력($r=.617,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스트레스($r=-.444,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30]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 지수가 2.219로 2에 가까워 독립성이 가정되었다. 또한 공차한계가 .755-.803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 확대요인(VIF)가 1.246-1.325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도 확인되었다.

1단계 방정식은 독립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2단계 방정식은 독립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단계 방정식은 독립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능력이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표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llege Life Adjustment (N=281)

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llege life adjustment
	r(p)		
Perceived stress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444(<.001)	1	
College life adjustment	-.478(<.001)	.617(<.001)	1

표 5.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 매개효과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281)

Predictors	B	SE	β	t	p	R ²	Adjusted R ²	F	p
1. Perceived stres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445	.054	-.444	-8.285	<.001	.197	.195	68.638	<.001
2. Perceived stress → College life adjustment	-.445	.049	-.478	-9.087	<.001	.228	.226	82.575	<.001
3. Perceived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 College life adjustment						.546	.543	167.057	<.001
Perceived stress→ College life adjustment	-.185	.042	-.198	-4.398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College life adjustment	.585	.042	.629	13.940	<.001				

Sobel test : Z=.567, p<.001

1단계에서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44$, $p<.001$). 2단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78$, $p<.001$). 3단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98$, $p<.001$),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29$, $p<.001$). 3단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효과($\beta=-.198$)가 2단계에서의 지각된 스트레스의 효과($\beta=-.478$) 보다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은 부분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567($p<.001$)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5).

IV. 고 찰

본 연구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활적응 평균 3.38±0.5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평균 3.34점으로 나타난 결과[31], 3.40점[32]으로 나타난 결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보인 결과[31-32]를 통해 간호대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신입생이 상급생들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이 낮다는 결과[33]를 통해 1, 2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1, 2학년부터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 학습과 교내실습 등에 부담감을 가지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저학년부터 학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학년별 이론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학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 상담,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과 적응을 유도하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를, 대인관계능력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이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1][34],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이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32].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5-36]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국가고시, 취업 등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같은 스트레스라도 개인마다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간호학과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양상에 따른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에 개별화된 중재전략의 중요성을 주장한 연구결과[37]와 같이 간호대학생이 개인마다 스트레스 정도, 양상을 스스로 파악하고 신체활동, 심리적 전략 등의 대처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장시간을 통해 습득해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저학년부터 포괄 집단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멘티활동 등을 통해 포괄, 선후배와의 대인관계를 맺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 훈련되므로 대인관계능력이 함양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에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등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과 현장적응 경험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능력을 발휘하는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은 부분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35]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지각된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간접적인 접근도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1-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지각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대인관계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K. Seo, and K. H.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test of college life adaptation", Student Review, Vol. 36, pp. 1-12, 2002.
- [2] H. J. Jung, and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 3, pp. 188-196, 2012.
- [3] S. Y. Jo, and K. L. Cho, "A study on the needs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and campus life

- adjustment for college freshm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8, pp. 1073–1097, 2019.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8.1073>
- [4]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No. 1, pp. 179–189, 1984.
- [5] H. J. Moon, “The relationship of adaptation of college and academic achievement: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openness and self-leadership”,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4, pp. 827–847,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4.827>
- [6] W. H. Moon, K. S. Chung, and M. J. Kim, “Mental health, stress, coping ability,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9, No. 3, pp. 103–114, 2012.
- [7] H. J. Cho, and E. J. Le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Vol. 19, No. 2, pp. 261–268, 2012.
- [8] S. N. Kim,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go-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Korea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Enneagram Spirituality*, Vol. 1, No. 1, pp. 46–57, 2012.
- [9] K. H. Kim, and Y. H. Cho, “Mediating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4, pp. 197–218, 2011.
- [10] M. K. Jeon, and M.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4, pp. 293–302, 2013.
- [11] K. H. Yoo,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3, pp. 1115–1137, 2018.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8.24.3.269>
- [12] H. K. Son, S. H. Kwan, and H. J. Park,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5, pp. 636–646, 2017.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5.636>
- [13] Y. J. Lee, and H. J. Jang, “Influence of self-identity, perceived stress and ambivalence on emotional expressiveness of freshmen to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3, pp. 1115–1137, 2020.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3.703>
- [14] E. K. Byun, and Y. J. Kim,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3, pp. 521–528,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3.521>
- [15] E. K. Moo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urnout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yungsangnando, 2012.
- [16] S. H. Sok, D. S. Shin, and K. B. Kim,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 4, pp. 475–481, 2006.
- [17] M. H. Kim, “A study on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55–64, 2008.
- [18] H. S. Jeong, and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5, pp. 2635–2647, 2012.
- [19] J. K. Kim, and M. J. Kim, “A review of research on hospital nurses’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4, pp. 538–550, 2011. DOI: <https://dx.doi.org/10.1111/jkana.2011.17.4.538>
- [20] S. S. Sim, and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634–642,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 [21] Y. S. Lee, S. H. Park, and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4, pp.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
- [22] S. Cohen, T. Kamark, and L. Mermelstein, “A

-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4, No. 4, pp. 385–396, 1983. DOI: <https://doi.org/10.2307/2136404>
- [23] S. Cohen, and G. Williamson,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pp.31–67). Newbury Park, CA: SAGE. 1998.
- [24] J. E. Lee, “The effects of self-complexity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uwon, 2014.
- [25] A. Schlein, and B. G. Guernsey,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CA: Josey-Boss, 1977.
- [26]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pp. 195–204, 1980.
- [27] W. G. Lee, “The effects of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diated by self-differentiation and we-consciousness”, Unpublished Docto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2006.
- [28]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2.
- [29] K. J. Kim, “The effects of recovery elasticity and burnout of college broadcasting major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20.
- [30]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1]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 68–7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68>
- [32] M. S. Park, C. U. Oh, and H. K. Kang, “Relationship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73–81,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2.073>
- [33] J. Y. Ahn, and H. K. Lim, “College adjustment of femal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4, No. 1, pp. 233–239, 2005.
- [34] I. H. Chun, and J. Y.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6, No. 1, pp. 49–60, 2016.
- [35] E. J. Oh, and S. A.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94–102,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8.94>
- [36] M. H. Lim,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9, pp. 225–23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25>
- [37]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4.5.3.029>